

일반사회 통계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대통령 탄핵과 관련 찬반 시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언론은 연일 정치 이슈로 가득하다. 한국 사회는 경제적 성장과 기술 발전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등의 깊은 골이 자리잡고 있다.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다양한 집단 간 갈등은 사회 전반에 긴장과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25년의 첫 번째 주제로 ‘사회 갈등’을 선정한 이유는 이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갈등은 사회 발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장기화할 경우 혐오와 같은 또 다른 문제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이번 넘버즈는 한국사회 갈등 현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10년 이상 심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민 3명 중 2명은 우리 사회 갈등이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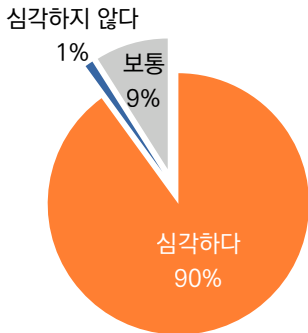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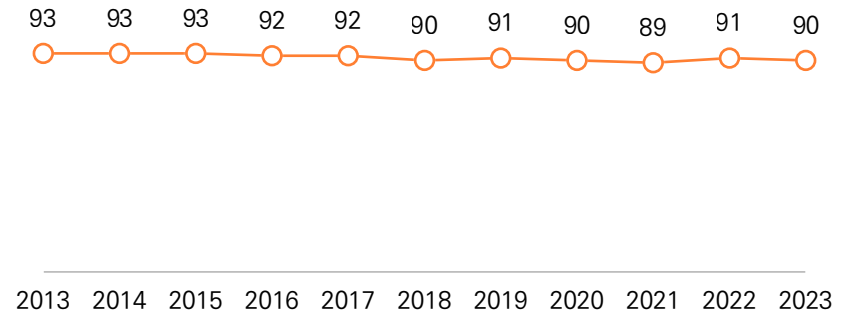
[한국사회 갈등 수준과 인식] 한국 사회의 심각한 갈등 수준, 10년 넘게 변동 없어!

-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2013년 이후 매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23년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11년간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일반 국민, 2023)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심각하다(매우+약간)’ 비율 (일반 국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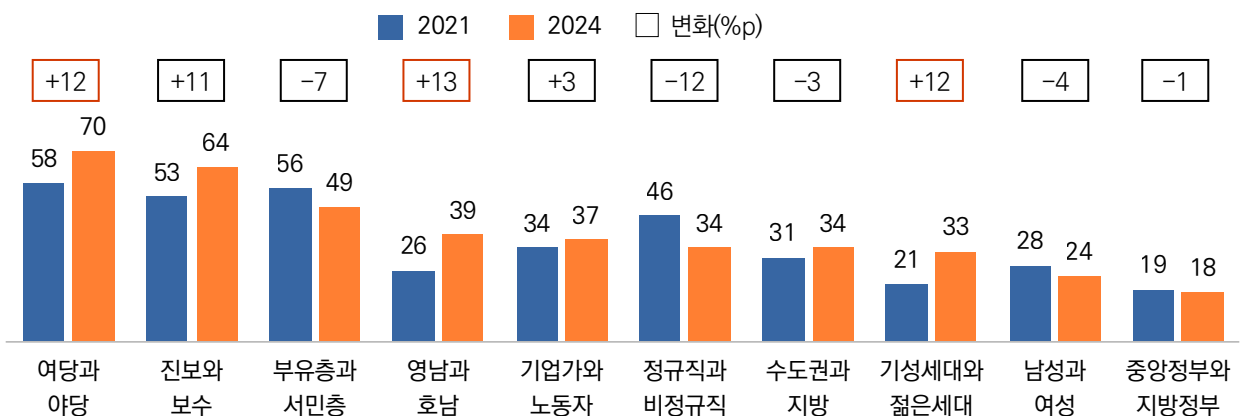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4.01.18.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8. ~2024.01.03.)

*5점 척도

한국의 가장 큰 갈등, ‘정치와 이념’!

- 우리 국민은 어떤 집단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변화는 어떠한가? 갈등이 ‘아주 크다’는 응답만을 놓고 보면 차이와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데, 가장 갈등이 큰 집단은 ‘여당과 야당’(70%), ‘진보와 보수’(64%)로 정치/이념과 관련이 높았다.
- 최근 4년간 갈등이 더 깊어진 집단은 ‘영남과 호남’(+13%p), ‘여당과 야당’(+12%p) 등 역시 정치/이념 갈등 관련이 높았다.
- 한편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갈등도 12%p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 내 세대갈등도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집단별 갈등 정도 (일반 국민, ‘아주 크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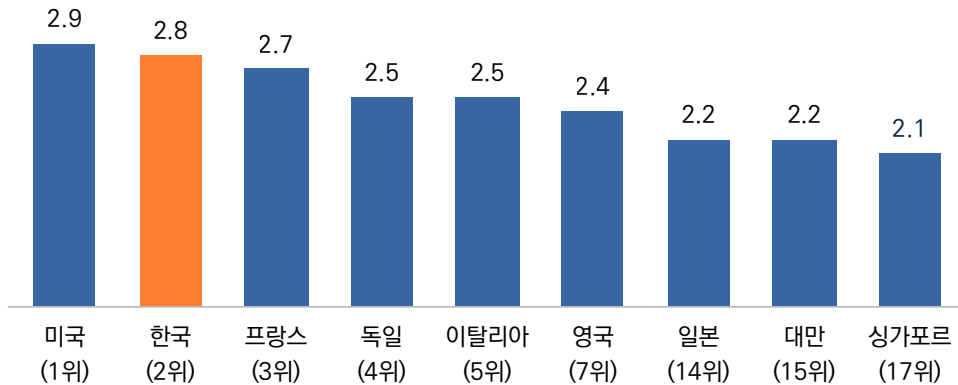
※출처 :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집단별 갈등인식-2024’, 2024.06.12.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 웹조사, 2024.05.31.~06.03.)

*4점 척도

한국의 사회 갈등, 세계 최상위 수준!

- 이러한 한국의 사회 갈등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떠할까? 미국의 퓨리서치센터는 17개국 대상으로 사회 갈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사회 갈등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이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그림] 국가별 인지된 사회 갈등 수준* (4점 만점, 평균점수)



※출처 : Pew Research Center, 2021.10.13. Diversity and Division in Advanced Economies.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21/10/13/diversity-and-division-in-advanced-economies/>)

*4점 척도 : 모든 영역에서 갈등 없음은 1점, 모든 영역에 갈등이 높음은 4점임.

Note) 조사 대상국: 미국,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영국,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그리스, 뉴질랜드, 일본, 대만, 스페인,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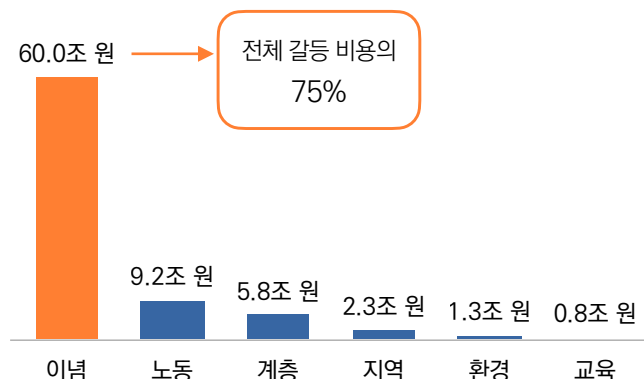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사회 갈등 비용 연 233조 원으로 국가 예산의 38% 수준!

- 이러한 이념과 사회적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손실일까? 국무조정실이 연구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간 사회 갈등 비용*은 2,326조 6천억 원으로 연평균 233조 원 수준이었다. 이는 2022년 국가 예산 608조 원의 38%에 해당한다.
- 유형별 연평균 갈등 비용은 '이념'이 60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전체 갈등 비용의 75%에 달하는 수치이다.

[그림] 사회 갈등 비용 (2013~2022년 기준)



[그림] 유형별 사회 갈등 비용 (1990~2022년 연평균)



※출처 : 이데일리, 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렸다, 2024.04.29. ([https://www.edaily.co.kr/News/](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05366638861040&mediaCodeNo=257)

Read?newsId=01105366638861040&mediaCodeNo=257)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위탁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분석' 연구 용역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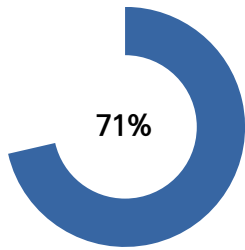
*연인원 500명 이상이 집단적 행동 조직, 공중 접근성이 자유로운 장소에서 최소 100명 이상이 1회 이상 집단적 행동 조직, 상충된 쟁점을 두고 대립하는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이 7일 이상 지속 등 3개 조건에 모두 부합한 경우를 공공갈등으로 판단해 갈등비용을 추계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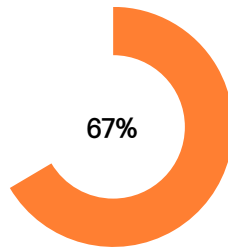
- 이러한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은 어떠할까?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71%)이 동의했으며,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에 대해서는 3명 중 2명(67%)이 동의해 그 심각성을 나타냈다.

[그림] 사회적 갈등의 위험성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은
과격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은
작은 불씨에도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수위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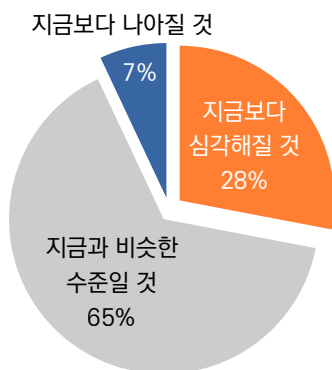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5점 척도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 갈등 전망, 비관적!

- 이러한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개선될 수 있을까? 향후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전망에 관해 물어본 결과,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다'는 응답이 65%를 차지했으며 '지금보다 심각해질 것'은 28%로 '지금보다 나아질 것'(7%)보다 크게 높았다.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모두 93%로, 우리 국민은 앞으로의 한국 사회 갈등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한국 사회 갈등 전망 (일반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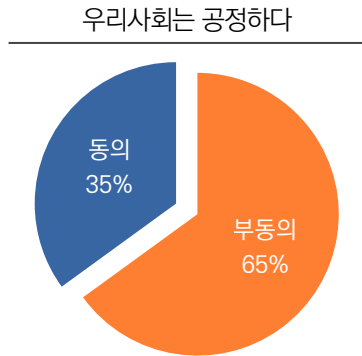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2023.12. (만 19~75세 남녀 3,952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6.01.~08.01.)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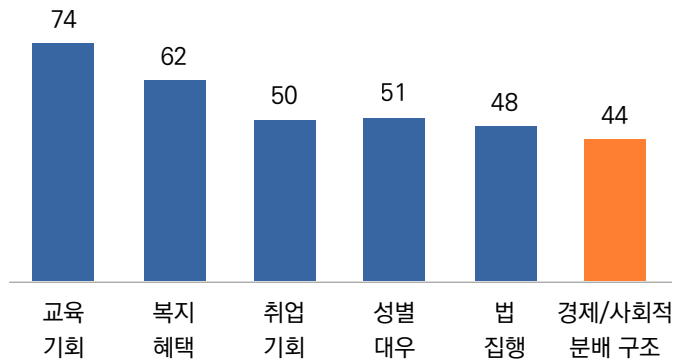
[공정성과 사회 갈등] 우리 국민 3명 중 2명,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 바람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정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를 묻은 결과 3명 중 2명(65%)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공정하다' 기준으로 가장 높은 분야는 '교육 기회'(74%)로 나타났으며, '법 집행'(48%), '경제/사회적 분배 구조'(44%)의 공정성 인식은 절반에 못 미쳤다.

[그림]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 (일반 국민)



[그림] 주요 분야별 공정성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공정하다' 비율*,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2023.12. (만 19~75세 남녀 3,952명, 면접조사, 한국리서치, 2023.06.01.~08.01.)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4.01. (만 19세 이상 남녀 8,221명,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면접조사, 2023.09.01.~1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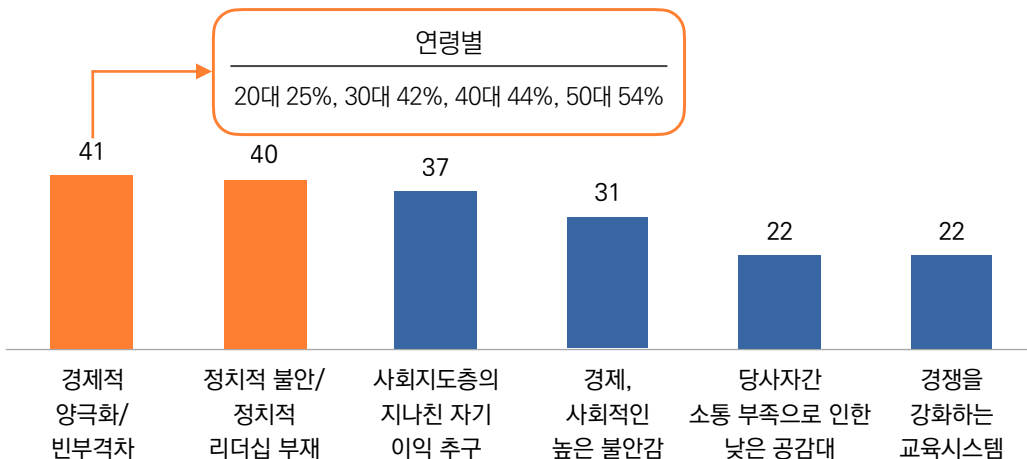
*4점 척도

03

[사회 갈등의 원인과 해결]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 '빈부격차'와 '정치 불안'!

- 우리 국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41%)와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더십 부재'(40%)가 가장 많았으며,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를 응답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사회적 갈등의 원인 (일반 국민, 중복응답, 상위 6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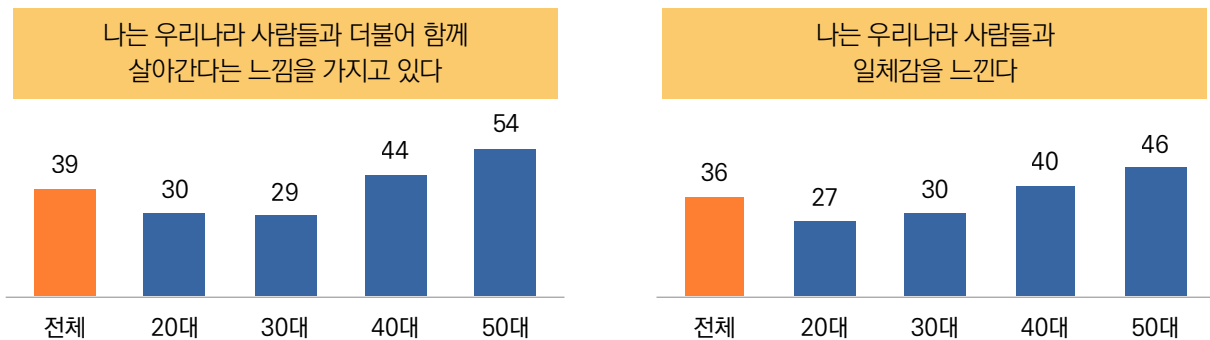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한국인, 실제 공동체 의식 느끼는 비율, 10명 중 4명 미만!

- ‘공동체 의식’이란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의식을 말한다. 사회의 여러 갈등 문제는 공동체 의식과 관련이 있는데, 공동체 의식이 강해지면 서로가 협조를 더 하게 될 것이고 사회의 많은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공동체 의식은 어느정도 형성돼 있을까? 공동체성에 대한 실제 인식 수준을 질문하였다.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에 대해 우리 국민 10명 중 4명(39%)만이 동의했으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체감을 느낀다’에 대해서는 이보다 적은 36%에 머물렀다.
- 공동체 의식 인식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 사회 공동체 의식 실제 인식 (일반 국민,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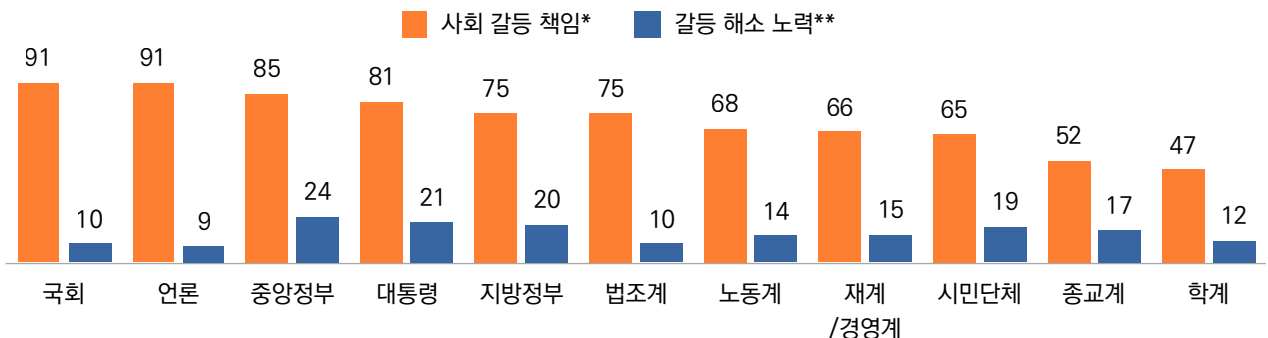
※출처 :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2024.05.21. (전국 만 19~59세 남녀 1,000명, 2024.05.17.~05.22.)

*5점 척도

종교계의 사회 갈등 해소 노력, 정부보다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영향력이 있는 11개 집단을 대상으로 사회 갈등 책임과 갈등 해소 노력 정도를 살펴본다. 먼저 사회 갈등에 대한 책임을 각각 평가한 결과, ‘국회’와 ‘언론’이 9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중앙정부’(85%), ‘대통령’(81%)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계’(52%)는 제시된 11개 집단 중 ‘학계’(47%) 다음으로 낮았다.
- 다음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 여부를 각각 평가한 결과, ‘중앙정부’가 2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대통령’(21%), ‘지방정부’(20%)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책임 정도에 비해 갈등 해소 노력 평가는 20%대 이하로 크게 낮았다.
- ‘종교계’의 노력 정도는 5위권(17%)으로 사회 갈등 책임 순위(10위)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는데, 정부보다는 못하지만 국회/언론 보다는 높게 평가 받았다.

[그림] 사회 갈등 책임도와 사회 갈등 해소 노력도 (일반 국민, %)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4.01.18.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8. ~2024.01.03.)

*‘책임 있다’ 응답 비율

**‘노력하고 있다’ 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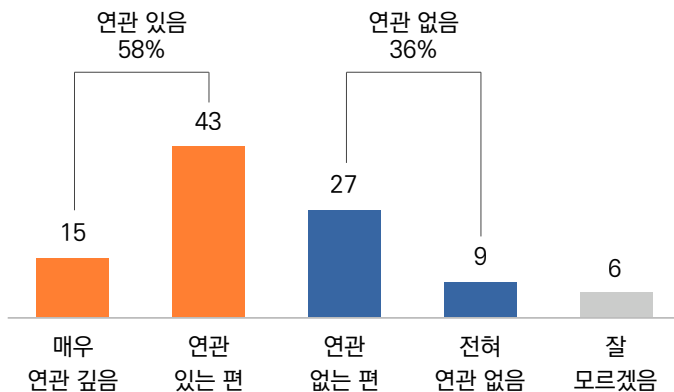
04

[한국교회와 사회 갈등]

기독교인 10명 중 6명, '한국사회 이념 갈등, 한국교회도 연관 있어!'

- 교회와 사회 갈등 관계에 대한 기독교인의 시각은 어떠할까?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의 이념(정치) 갈등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꼴인 5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절반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사회 갈등에 교회가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한국교회의 '이념(정치) 갈등' 연관 정도 (기독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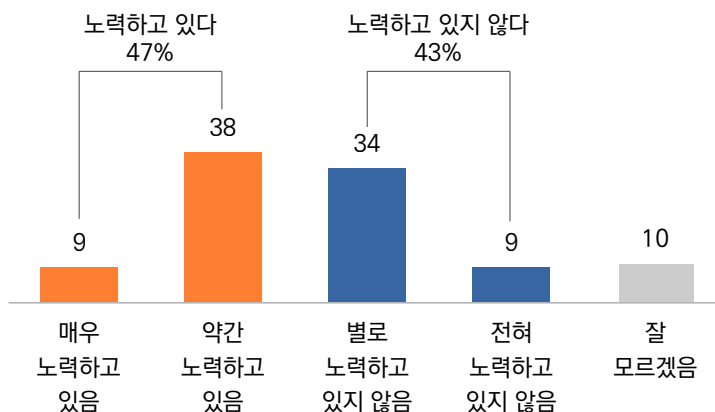


※출처 :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 2024.01.23.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0. ~2024.01.04.)

기독교인,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한국교회의 노력, 높게 평가하지 않아!

- 이번에는 사회 갈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노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43%)보다 높았지만,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매우 노력함' 비율은 9%에 불과했다. 기독교인들은 한국교회가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림] 한국교회의 사회 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정도 (기독교인, %)



※출처 : 이음사회문화연구원, '갈등과 용서 및 화해에 대한 인식 조사', 2024.01.23. (전국 만 19세 이상 기독교인 남녀 1,000명, 온라인 조사, 2023.12.20. ~2024.01.04.)

이번호 요약

1. 국민 3명 중 2명, 우리사회 갈등,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

- 우리 국민 대다수인 90%가 우리 사회 전반적 갈등 수준을 '심각하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심각한 갈등 수준은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 한국의 사회 갈등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순위이다.
- 이러한 사회 갈등에 대해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순식간에 폭발할 정도로 위험'하다고 인식했다.

2. 지난 10년간 사회 갈등 관리 비용, 연 233조원으로 국가 예산의 38%!

- 지난 10년간 한국사회 갈등 관리 비용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결과 연평균 233조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국가 예산의 38%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갈등사회와 한국교회의 역할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시대 공감 토크 콘서트]
- ▶ [칼럼] 사회 문제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김영한 교수, 크리스천투데이]

관련 성경 구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17~18)

목회 적용점

현재 한국 사회는 극심한 이념적 갈등을 겪고 있다. 마치 해방 직후 신탁통치 찬반 갈등을 보는 듯하다. 본 보고서에 나타났듯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국가인데 이는 고스란히 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된다. 국가 예산의 38%가 갈등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갈등을 줄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국가적 과제인가를 깨닫게 한다.

종교사회학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 중 하나가 사회통합 기능이라고 말한다. 국민들은 종교가 우리 사회의 사회 갈등 해소 노력 정도에 대해 17%만이 노력한다고 응답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으로 제시된 9개 집단 중 종교단체는 1.2%로 꼴찌를 기록했다. 국민들은 사회통합을 이루는 집단으로 종교단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교회가 이념논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목회자들이나 교인들도 교회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에 절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유튜브이다. 예컨대 극우나 극좌 유튜브를 계속 시청하다 보면 확증편향 구조에 의해 처음에는 '진짜 그럴까' 하다가 나중에는 '확실한 믿음'으로 변하게 된다. 이념적 좌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로 이념 갈등을 보아야만 종교 본연의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에게 이 질서와 조화를 보존할 사명을 주셨다. 따라서 평화와 조화를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목표를 넘어 창조적 사명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념을 '허상'이라 표현한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이념이라는 허상을 좇지 않고 이념을 상대화시키고 사회통합이라는 창조적 사명을 감당하길 기대한다.